

# 문화 콘텐츠 창업 · 벤처기업 투자 본격화

전주시, 50억원 규모 '전북초기투자 크립톤 혁신펀드 1호' 결성

전주지역 문화 콘텐츠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펀드가 조성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유망한 문화 콘텐츠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유통도 가능해져 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출자에 참여한 '전북초기투자 크립톤 혁신펀드 1호'가 최근 조합결성총회를 거쳐 최종 결성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선정된 '지역 창업초기 모태펀드'의 펀드 운용사 크립톤은 지난달 말 조합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 1일 펀드 조합결성총회를 개최하는 등을 하반기 본격적인 기업



전주지역 문화 콘텐츠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펀드가 조성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발굴 및 투자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혁신펀드는 모태펀드 30억 원과 시에서 출자한 10억 원, 업무집행조합원인 (주)크립톤과 (재)전북첨조경제혁신센터의 1억5000만 원, 유한책임조합

원인 비나텍(주)과 개인출자자 등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K-콘텐츠 분야 창업 · 벤처기업의 성장을 돋보이게 될 펀드는 △전북지역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초기창업기업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콘텐츠 분야 혁신 벤처 ·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억 원 이하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조성된 성장기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18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와 3년 이하 기업을 위한 33억 원 규모의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활용해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전주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긍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집중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유망 창업 · 벤처기업의 본격적인 발굴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청년 직원 5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직원들과 비전 공유

500여명과 소통 한마당 행사 가져… 업무 중 겪었던 다양한 고민 · 고충 의견 등 수렴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직원들과 강한 경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5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청년 직원 5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 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6급 이하 직원들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격의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전주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청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향후 전주시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우 시장은 또 직원들이 업무 중 겪었던 다양한 고민과 고충 의견을 수렴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장 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도 진행했다.

시는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청원 소통 한마당 행사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주시 소속 모든 직원이 함께 하는 '청원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젊은 공무원은 우리 전주시의 미래이자 중심이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장을 마련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식중독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여름철 고온습한 요즘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중독 증상은 감염 후 1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나타나며,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키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발열, 두드러기, 근육통,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중독 예방수칙은 △평소 순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고기나 생선은 반드시 양혀 먹기 △요리할 때 쓰이는 도구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냉장고 안에 장기간 방치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기 등이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식중독은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50%나 예방 할 수 있다"며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동장 송정하)와 우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선홍)는 지난 4일, 전주덕진신협과 '전주 시그니처 호텔'을 착한가게 53, 54호로 각각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 우아1동 착한가게 53 · 54호점 탄생

전주덕진신협 · 전주 시그니처 호텔 각각 선정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동장 송정하)와 우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선홍)는 지난 4일, '전주덕진신협'과 '전주 시그니처 호텔'을 착한가게 53, 54호로 각각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임문우 전주덕진신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변의 상가들이 십시일반 이웃을 돌보는데 적극 참여하여 착한가게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호 '시그니처 호텔'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정기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작은 후원금이 관내 소외 이웃들에게 뜻깊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 등을 통해 기탁된 성금은 우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연중 반찬 나눔사업,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 꿈나루 장학금 지원 사업, 명절이웃돕기 등 관내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x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 · 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 |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사업에 사용

|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

전주시 평화2동 해바라기봉사단, 영양 찰밥 나눔 봉사

전주시 평화2동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지난 5일 동신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영양 찰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영양 찰밥과 과일, 떡 등 여러 음식 등을 대접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 나눔을 진행하였다.

해바라기봉사단은 매달 취약계층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